

《漢代 軍樂 연구》

- 鼓吹鏡歌 18수를 중심으로 -

김 인 호*

— <目 次 —

- | | |
|----------------|---------------|
| I. 서 언 | IV. 한대 군악의 분석 |
| II. 한대 군악의 성격 | V. 결 언 |
| III. 한대 군악의 상황 | |

I. 서 언

곽무천의 《악부시집》에 의하면, 한대 악부시는 크게 祭儀詩 郊廟歌辭, 宴會詩(燕射歌辭), 軍樂(鼓吹曲辭, 橫吹曲辭), 민간가요(相和歌辭, 清商曲辭, 舞曲歌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중국학자들의 악부 연구는 이 중에서 악부민가라고 불리는 민간가요(相和歌辭, 清商曲辭, 舞曲歌辭)에 있었다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이는 악부민가의 내용이 솔직하고 박실하여 후대 학자들의 의해 많은 관심을 끌었고 또한 후대 중국의 5 7언 전통시들이 이 악부민가에서 연원되어져 나왔다고 보는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되어 진다. 그리고 교묘에서 제사지낼 때 부른 郊廟歌辭(祭儀詩)는 그 내용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한 황실의 정통성과 천자의 만수무강만을 읊은 ‘성스럽고 경건하며 엄숙한’ 내용으로만 되어 있어 중국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음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후대 중국 궁중에서 행해진 종묘제례악의 내용은 모두 한대 교묘가사와 마찬가지로 그

* 동의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성스럽고 경건하며 엄숙한’ 내용으로만 되어 있다. 궁중 연회에서 노래 부른 燕射歌辭(宴會詩)는 지금 그 제명만 전해오고, 실제 한대 작품은 단 하나도 전해오지 않으니 역대 학자들에 의해 그 연구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다.

鼓吹曲辭 橫吹曲辭라 불리는 한대 軍樂은 고취요가 18수만이 우리에게 전해오는데,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군악이라 보기 힘들게 하는 작품도 적지 않고 또한 작품 내용이 많이 뒤섞여 있어 해석조차 어려운 부분도 많다. 이에 역대 학자들은 이들 작품에 대한 고증과 문자의 옳고 그름에만 치우치고, 이들 작품들의 내용에 대한 진정한 연구와 해석은 거의 도외시해 왔다. 게다가 군악의 성격에 대한 역대 학자들의 이해 부족이 군악으로서의 이 방면의 연구를 더욱 멀리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유의하고 한대 군악의 성격과 그 당시 군악 상황 그리고 각 군악 작품들을 군악 본래의 성격에 맞추어 분석 해석하고자 한다.

II. 한대 군악의 성격

鼓吹鑿歌, 鼓吹曲辭, 橫吹曲辭 등으로 불리는 군악은, 그 주제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전쟁터에서 적을 제압하고 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부르는 ‘행진가적 군악’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공을 세우고 돌아온 군인들을 위로하고 칭송하기 위해 거리에서 혹은 연회에서 혹은 혹은 朝會에서 혹은 교묘에서 부르는 ‘개선가적 군악’이다. 崔豹의 《古今注》에 군악의 성격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구절이 있다.

단소요기는 군악이다. 黃帝가 岐伯으로 하여금 짓게 했는데, 그럼으로써 ‘위엄을 세우고 덕을 드높이며’(建威揚德), ‘적을 풍자하고 아군의 사기를 높인다(風敵勸士)’. 《周禮》에 말하기를, 왕이 전쟁에서 크게 이기면 凱旋樂을 짓도록 했다. 漢樂에 黃門鼓吹가 있는데, 천자는 그것으로 군신들에

게 잔치를 베풀어 즐겁게 했다. 단소요가는 (黃門)鼓吹의 한 종류이다. 역시 그것으로 공이 있는 제후들에게 하사했다. (短篇鑿歌, 軍樂也, 黃帝使岐伯作, 所以建威揚德, 風敵勸士也, 周禮所謂王大捷則令凱樂, 漢樂有黃門鼓吹, 天子所以宴樂群臣也, 短篇鑿歌, 鼓吹之一章爾, 亦以賜有功諸侯.)

윗 글에서 보면 군악을 짓는 목적으로 ‘위엄을 세우고 덕을 드높이는 것(建威揚德)’과 ‘적을 풍자하고 아군의 사기를 높이는 것(風敵勸士)’을 들고 있다. ‘위엄을 세우고 덕을 드높이는 것(建威揚德)’이란 무공을 세우고 돌아온 군인을 위로하고 칭송하기 위해 거리에서 혹은 연회에서 혹은 조회에서 혹은 교묘에서 부른 ‘개선가적 군악’을 뜻한다 하겠고, ‘적을 풍자하고 아군의 사기를 높이는 것(風敵勸士)’이란 전쟁터에서 적을 제압하고 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부르는 ‘행진가적 군악’을 뜻한다 하겠다. 《周禮》에 왕이 전쟁에서 크게 이기면 이를 축하하고 병사를 위로하는 ‘개선가적 군악(凱樂)’을 짓도록 했다고 하고 있다. 《宋書·樂志》에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있다¹⁾. 이처럼 군악이란 크게 행진가적 군악과 개선가적 군악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궁중에서 베풀 연회에서 부른 연회시를 黃門鼓吹라고 하는데, 漢樂 黃門鼓吹 중의 하나인 단소요가란 근본적으로 무공을 세우고 돌아온 군인들을 칭송하고 위로하기 위해 베풀 연회에서 부른 개선가적 군악이라 할 수 있다. 무공을 세운 군인이나 여러 업적을 세운 제후나 신하를 위해 베풀 연회에서 하사한 음악 역시 개선가적 성격의 음악이라 할 것이다. 고로 개선가적 군악의 일종인 단소요가를 연회시(黃門鼓吹)의 일종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위에 인용된 기록에서 단소요가(개선가적 군악)를 공이 있는 제후에게 하사했다고 하고 있다.

蔡邕의 《禮樂志》에 “세번제가 黃門鼓吹인데, 천자가 그것으로 군신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그’ 단소요가는 군악이다.(三曰黃門鼓吹, 天子所以

1) “短篇鑿歌, 軍樂也, 黃帝岐伯所作, 以建威揚德, 諷敵勸士也, 周官曰, 師有功則凱樂.”

宴樂群臣。其短簫繞歌，軍樂也)”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대 단소요가라고 불리는 군악은 개선가적 군악으로, 연회에서 부른 黃門鼓吹(연회용 음악)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天子가 베푸는 연회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무공을 세우고 개선한 군인을 칭송하고 위로하기 위해 베푼 연회에서 연주된 것이 바로 단소요가(개선가적 군악)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단소요가(개선가적 군악)를 黃門鼓吹(연회용 음악)의 일종이라고 한 崔豹의 《古今注》의 언급은 맞는 말이다.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군악이란 씩씩함을 드러내주기 위해 타악기와 취악기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한대 군악 역시 鼓(타악기)하고 吹(취악기) 했었다. 곽무친의 《樂府詩集》 권 21에 보면;

橫吹曲은 그 처음엔 역시 鼓吹라고 불렀다. 말 위에서 연주하니 대개 軍中의 음악이다. 北狄의 諸國들은 모두 말 위에서 음악을 했다. 한 이래로 北狄樂은 모두 鼓吹署에 속했다. 그것은 후에 두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簫笳가 있는 것은 鼓吹라 하여 朝會 道路에 사용하며 또 그것을 給賜하기도 하였다. 한 무제 때 南越 七郡에 모두 鼓吹를 주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鼓角이 있는 것을 橫吹라 하는데 軍中에서 사용하여 말 위에서 연주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橫吹曲, 其始亦謂之鼓吹. 馬上奏之, 蓋軍中之樂也. 北狄諸國, 皆馬上作樂. 自漢以來, 北狄樂, 總歸鼓吹署. 其後分爲二部, 有簫笳者, 爲鼓吹, 用之朝會道路, 亦以給賜. 漢武帝時, 南越七郡, 皆給鼓吹, 是也. 有鼓角者, 爲橫吹, 用之軍中. 馬上所奏者, 是也.)

윗 글에서 朝會와 道路에 사용하고 또한 給賜한 簫笳가 있는 鼓吹라는 것은 ‘개선가적 군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한 조희란 무공을 세운 군인들이 천자를 배알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도로란 무공을 세운 군인들이 개선할 때 도로에서 그들을 축하하고 위로하기 위해 부르는 것을 뜻한다. 또한 給賜한 무공을 세운 군인에게 상으로 개선가적 군악을 하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무제 때 南越 七郡을 정벌하여 무공을 이룬 군인들에게 이 개선가적 군악을 하사했다고 하고 있다. 지금도 전쟁에서 큰

무공을 세운 부대에 하사기를 내리기도 하지만 또한 그 무공을 칭송하는 노래를 지어 하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이와 같은 것이라 여겨진다. 이 때 불려지는 음악을 鼓吹라고 하고 있는데, 이 鼓吹란 바로 개선가적 군악을 뜻한다 할 수 있다.

무공을 세운 군인을 칭송하고 위로하기 위해 배푼 연회에서 연주되어지는 개선가적 군악인 이 鼓吹樂은, 이후 그 사용 범위가 더욱 넓어져 개선하는 군인을 위해 배푼 연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연회에서도 사람들을 즐겁게(娛人) 하기 위해 연주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이 이른바 黃門鼓吹(연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궁중연회나 일반연회에서 鼓吹樂이 연주되었다는 기록이 많이 보이고 있다²⁾.

그리고 군대에서 말 위에서 연주하는 鼓角이 있는 橫吹라는 것은, '행진가적 군악'을 뜻하는 듯하다. 이 군악은 '적을 제압하고 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風敵勸士)'을 주목적으로 하는 군악이다. 이 행진가적 군악은 군대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냥 시에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짐승을 쫓는 용맹함을 고무시키기 위해, 주위의 악사들이 북과 팽과리를 치며 행진가적 군악을 연주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사마상여의 <上林賦>에도 田獵할 때 씩씩하고 용맹한 행진가적 군악을 여러 사람들이 연주하고 노래했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들 두 부류를 포함하는 모든 군악이 한대에는 鼓吹署에 속하였는데, 후에 분리되어 개선가적 군악은 鼓吹에, 행진가적 군악은 橫吹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행진가적 군악이 鼓吹에서 분리되어 따로 橫吹에 속하게 된 것이다.

2) 《三輔黃圖》: “漢昆明池, 武帝元狩四年穿. 池中有龍首船, 常令宮女汎舟池中, 張鳳蓋, 建華旗, 作權歌, 雜以‘鼓吹’, 帝御豫章親臨觀焉.”

Ⅲ. 한대 군악의 상황

그러나 개선가와 행진가를 그 본령으로 하는 군악 작품들이, 한대의 작으로 별로 전해내려 오지 않는다. 이 이유는 확실치 않으나, 개선가적 군악은 일반 宴會樂과 뒤섞임으로 말미암아, 개선가적 군악 중에서도 연회용 娛人의 성격이 강한 작품들은 哀帝 때 모두 鄭聲之樂이라 하여 파해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행진가와 개선가의 성격을 그대로 지닌 군악은 애제 때 파해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때 파해지지 않은 古兵法武樂이란 바로 이런 종류의 음악이 아닌가 한다³⁾. 이런 古兵法武樂이 후한 明帝 때에도 漢樂 四品 중의 하나로 속했던 것으로 보아, 당시 이런 군악을 궁중 정통음악의 하나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明帝 때 漢樂 四品 중의 하나에 속하는 정통 군악이 어째서 별로 전해 내려오지 않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한서·예문지》 목록에 군악으로 보이는 작품으로 <漢興以來兵所誅滅歌詩> 14편 단 한 작품만이 수록되어 있는데, 題名으로 보아 개선가적 군악이 확실하다. 그들은 이 작품을 읊어 한의 국토 개척을 칭송하고 한 제국의 정당성을 널리 홍보했을 것이다. 《한서·예문지》 목록에 이런 군악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한대 궁중에서 이런 군악을 작사·작곡·연주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군악으로 고취요가 18수를 들 수 있다. 원래 22수였으나, <務成>, <玄雲>, <黃爵>, <釣竿>의 4 작품은 그 내용이 전해내려 오지 않으니⁴⁾, 일반적으로 고취요가를 18수라 한다. 18수의 작품은 <朱鷺>, <思悲翁>, <艾如張>, <上之回>, <翁離>, <戰城南>, <巫

3) 《漢書·禮樂志》: “郊祭樂及古兵法武樂, 在經非鄭聲之樂者, 條奏別屬他官.”

4) 《古今樂錄》: “又有務成, 玄雲, 黃爵, 釣竿, 亦漢曲也. 其辭亡. 或云, 漢鑄歌二十一, 無釣竿.”

山高>, <上陵>, <將進酒>, <君馬黃>, <芳樹>, <有所思>, <稚子班>, <聖人出>, <上邪>, <臨高臺>, <遠如期>, <石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요기는 해석하기 어렵기로 정평이 나있는데, 이는 후에 문자가 서로 訛傳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18수 중에 완전히 해석이 가능한 작품은 <戰城南>, <上邪>, <有所思> 뿐이며, 반쯤 해석이 가능한 작품으로 <翁離>, <朱鷺>, <思悲翁>, <芳樹>가 있다. 그리고 전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작품도 있는데, <石留>에 이르러서는 그 句讀조차 불가능하다. 한대 그것도 전한시대의 작으로 알려진 이 요가가, 그 한참 뒤인 위진 남북조 시대에 지어진 史書인 《宋書》에 처음 실려 있는데, 이런 시대적 차이로 말미암아 중간에 문자가 訛傳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晉의 智匠이 “한 고취요가 18곡은 글자가 많이 訛傳되고 잘못되었다.”⁵⁾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晉 때부터 訛傳된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떤 이는 이들 작품의 해독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를 聲(소리)과 辭(내용)가 뒤섞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⁶⁾. 聲과 辭가 뒤섞였다는 입장에서, 청대의 많은 고증학자들이 聲(소리)과 辭(가사)를 분리해 내려는 작업을 진행시켰었다⁷⁾.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작품들은 이들 작품들이 지어진 전한 당시의 본래 모습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당연히 행진가와 개선가의 성격의 軍악이어야 할 이들 18수에,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軍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작품도 섞여 있다. 심지어 역대 학자 중 아주 보수적인 사람은 18수 중 軍악의 성격이 확실한 작품으로 <戰城南> 한 수만을 드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작품 역시 그에 의하면 전쟁의 고통을 읊은 작품으로 보기 때문에, 행진가와

5) 《古今樂錄》: “漢鼓吹鑿歌十八曲, 字多訛誤.”

6) 沈約의 《宋書·樂志》, 嚴羽의 《滄浪詩話》 참조.

7) 陳本禮의 《漢詩統箋》, 陳沆의 《詩比興箋》, 莊述祖의 《漢鑿歌句解》, 譚儀의 《漢鑿歌十八曲集解》, 王先謙의 《漢鑿歌釋文箋正》, 聞一多的 《樂府詩箋》 등이 그것이다.

개선가를 그 본체로 하는 군악의 성격과는 판연히 달라, 이 또한 군악이라고 보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외의 작품들은 모두 군악과는 전혀 상관 없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이는 역대 중국학자들이 군악이란 자고로 ‘용감하고 씩씩해야 한다’는 편협한 사고에 매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행진가와 개선가를 그 본체로 하는 군악 중에, 중국학자들이 용감하고 씩씩한 행진가적 성격의 작품만을 군악으로 보고, 개선가적 성격의 작품을 군악으로 엄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선가적 군악이란 무공을 세운 군인을 칭송하고 위로한 작품인데, 이것도 그 주제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그 무공을 교묘에 告神하며 부른 작품도 있을 수 있겠고, 둘째 군인을 위해 배푼 연회에서 그 군인들이 제왕의 성덕을 칭송하거나 혹은 한 왕조의 위대함과 정통성을 읊은 작품도 있을 것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도로나 연회에서 무공을 세운 군인을 칭송하고 위로한 내용으로 되어있는 작품도 있을 수 있다. 이 모두 개선가적 군악의 범위에 속한다 하겠다. 이렇게 보면 앞의 두 가지는 한 대 교묘가사와 비슷한 제의가적 성격이 농후하게 되고, 뒤의 한 가지는 연회시(黃門鼓吹)적 성격이 농후하게 된다. 행진가적 군악이란 근본적으로 원시시대 적을 치기 전에 혹은 사냥 나가기 전에 행해진 출정 ‘의식’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의식가의 일종이고, 개선가적 군악이란 크게 보아 제의시 혹은 연회시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다.

IV. 한대 군악의 분석

그럼 이런 입장에서 18수 중 군악적 입장에서 해석이 가능한 작품들을 위주로 분석해 보자.

붉은 해오라기 물고기를 먹고 있구나.
해오라기 무엇을 먹나? 연 줄기 아래를 먹지.

朱鷺, 魚以烏
鷺何食? 食茄下.

그것을 먹지 않으면 토할 수가 없도다.
장차 그러므로 誅殺할 자를 묻는구나.

不之食, 不以吐.
將以問誅者.

위 작품은 <朱鷺>이다. 《隋書·樂志》에 보면,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북에 붉은 헤오라기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모습을 장식해 넣었다고 한다⁸⁾. 붉은 헤오라기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은 아군이 적을 쳐부수는(잡아먹는) 것을 비유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러므로 출정 전에 아군의 사기를 진작시킨 듯하다. 만약 이것이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면, 이 작품은 분명 적을 제압하고 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風敵勸士) 행진가적 군악이다. 병사의 사기를 직접 진작시키기보다, 북에 그려진 붉은 헤오라기가 물고기를 잡아먹는(아군이 적을 쳐부수는) 모습을 비유해 간접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하겠다.

하느님!
내 그대와 서로 알려고 하니,
긴 운명 끊어져 쇠하지 않기를.
산언덕 닳고 장강 물 마르고,
겨울에 벼락치고 여름에 눈 내리고,
천지가 붙는다 할지라도
이에 어찌 감히 그대와 끊어지리!

上邪!
我欲與君相知,
長命無絕衰.
山無陵, 江水爲竭,
冬雷震震, 夏雨雪,
天地合,
乃敢與君絕!

<上邪>인 이 작품은 문맥상으로 보면, 어떤 여인이 간절하게 사랑의 맹세를 노래한 듯하다. 그러나 이 작품을 군악이라는 입장에 맞추어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君(그대)이란 사랑하는 임이 아니라, 충성을 바쳐야 할 제왕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고대의 많은 작품에서 君이란 자기가 모시고 있던 제왕을 뜻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 작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어떤 경우라도 제왕(君)과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며 운명을 같이 하

8) “建鼓, 殷所作. 又棲翔鷺於其上. 不知何代所加. 然則漢曲蓋因飾鼓以鷺而名曲焉.”

겠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이 작품은 출정하기 전에 행해진 출정의 식에서 제왕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여 부른 決戰歌로도 볼 수 있다.

성 남쪽에서 싸우다 성 북쪽에서 죽었는데,	戰城南, 死郭北,
들판에서 죽어 장사지내지 않으면 까마귀 밥되겠지.	野死不葬烏可食.
나 위해 까마귀에게 말해주렴.	爲我謂烏,
“객을 위해 호곡이나 하여 달라고.	且爲客豪,
들판에서 죽어 진실로 장사지내지 않으면,	野死諒不葬,
썩은 고기 어찌 능히 그대 밥 면할 수 있겠는가?”고.	腐肉安能去子逃?
물 깊어 맑고 창포와 갈대 무성한 속에	水深激激, 蒲葦冥冥,
용감한 기병 전투하다 죽으니	梟騎戰鬪死,
노둔한 말 배회하며 운다.	駑馬徘徊鳴.
궁실 짓는데 얼마나 남에서 북에서 징발했나?	梁築室, 何以南, 何以北?
곡식 거두지 않으면 임금은 무엇을 먹으리?	禾黍不穫君何食?
원건데 충신이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願爲忠臣安可得?
그대 훌륭한 병사가 그림구나.	思子良臣,
훌륭한 병사가 정말 그림구나	良臣誠可思.
아침에 나가 싸우다	朝行出攻,
저녁에 돌아오지 않게 되다니!	暮不夜歸!

<戰城南>이라 불리는 이 작품은 군악 그 본래의 성격과는 관계가 먼 지독한 反戰의 노래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작품을 군악이라는 입장에 맞추어보면, 전쟁터에 널려있는 전몰장병을 위해 장사를 지내면서 읊은 鎮魂歌의 성격이 강한 것 같다. 여기에서 말한 ‘我’, ‘客’, ‘梟騎(용감한 기병)’, ‘忠臣’, ‘良臣(훌륭한 병사)’ 등등은 모두 전쟁터에서 죽은 전몰장병을 뜻하는 듯하다. 진혼가란 그 자체의 성격상 아주 슬픈 것이 특징인데, 이 작품 역시 그 내용이 비통하다. 이런 비통한 내용이 후대인들에 의해 오해되어 반전의 노래로 비쳐진 것이 아닌가 한다. “용감한 기병 전투하다 죽으니, 노둔한 말 배회하며 운다(梟騎戰鬪死, 駑馬徘徊鳴)”고 하며 死者를 슬피 위로하고 있다. “궁실 짓는데 얼마나 남에서 북에서 징발했나? 곡식 거두

지 않으면 임금 은 무엇을 먹으리?(梁築室 何以南 何以北? 禾黍不穫君何食?)”라는 구절이 많은 장정들을 억지로 끌고 왔다는 식으로 해석되어 반전의 느낌을 주는 대목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구절은 궁실 짓고 곡식 거두는데 장정들이 투입되지 않으면 임금조차도 먹을 수 없으니 그렇게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대 병사들이 이렇게 죽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위로하는 문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충신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처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장병만이 진정한 충신이라고 하며, 죽은 병사의 혼을 위로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에 “그대 훌륭한 병사가 그림구나. 훌륭한 병사가 정말 그림구나. 아침이 되어 나가 싸우다,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니! (朝行出攻 暮不夜歸)” 하며 전몰장병을 슬피 위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전쟁터에 나뒀구는 전몰장병을 장사지내면서, 그들을 위로하여 옴은 슬픈 진혼가의 성격이 강하다 하겠다.

主上께서 回中에 가셔서, 行在所에 쉬는구나.	上之回, 所中益.
여름이 장차 이르니,	夏將至,
몸소 장차 북의 蕭關으로 가시는구나.	行將北.
그러므로 甘泉宮에서 寒暑의 德을 대신하셨도다.	以承甘泉宮寒暑德.
石關宮에 노니시며 제후들을 바라보니,	遊石關, 望諸侯.
月支國은 신하가 되어 있고 흉노들은 복종하였구나.	月支臣, 凶奴服.
숨을 내려 백관으로 하여금 빨리 쫓게 하셨으니,	令從百官疾馳驅,
천년 만년동안 즐거움 끝이 없으시길.	千秋萬歲樂無極.

<上之回>라 불리는 이 작품은 개선한 군인들을 위하여 연 궁중조희나 연회에서, 그 개선한 군인들에 의해 한 왕실을 축복하고 황제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기 위하여 지어진 작품이 아닌가 한다. 그들은 여기에서 武帝의 무공을 칭송하고 그의 만수무강을 빌고 있다. 이와 비슷한 주제의 작품들은 그 당시 궁중조희나 연회에서 흔히 지어졌었다. 《악부시집》에서는 鼓吹가 朝會, 道路, 給賜에 사용되었다 했는데, 이 작품은 그 성격상

朝會에 사용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한 조희란 무공을 세운 병사들이 천자를 배알하고(朝會)난 뒤, 천자 앞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배운 연회를 말한다. 고취요가 18수 중의 하나인 이 <上之回>란 작품은, 그런 천자 앞에서 배풀어진 연회에서 무공을 세우고 개선한 武將에 의해 무제에게 바쳐진 노래일 가능성이 높다. 오랑캐를 물리치고 영토를 많이 넓혔기 때문에 武帝께서 편히 지낼 수 있다고 읊고 있다. “主上께서 回中에 가셔서, 行在所에 쉬는구나. 여름이 장차 이르니, 몸소 장차 북의 蕭關으로 가시는구나. 그러므로 甘泉宮에서 寒暑의 德을 대신 하셨도다(上之回, 夏將至, 行將北, 以承甘泉宮寒暑德.).”가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 노래 중간에 “月支國은 신하가 되고, 흉노들은 복종하였구나. 영을 내려 百官으로 하여금 빨리 쫓게 하셨으니.(月支臣, 凶奴服. 令從百官疾馳驅.)”하고 무제의 武功을 칭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마지막에 무제에게 “천년 만년동안 즐거움 끝이 없으시길(千秋萬歲樂無極).”하며 축원하고 있다. 크게 보아 개선가적 군악이라 할 수 있다.

擁關과 離水關, 交趾國에 궁실을 지으려고 하는데, 擁離趾中可築室,
무엇으로 그것을 덮지? 蕙草와 蘭草를 사용하지. 何用葺之? 蕙用蘭.
擁關과 離水關, 그리고 交趾國에. 擁離趾中.

<擁離> 혹은 <翁離>라 불리는 이 작품은 南越을 멸한 군인들의 공을 칭송한 작품인 듯하다. 《漢書·地理志》에 무제 元鼎 6년에 南越을 멸하여 越地를 평정하여 난 뒤 鬱林, 蒼梧 交趾郡을 창설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작품에서 말한 擁關이란 바로 鬱林郡에 있는 지명이고, 離水關이란 바로 蒼梧郡에 있는 지명이다. 그 정벌된 지역에 궁궐을 짓는 것을 읊은 작품으로, 오랑캐 땅에 중국에서 나는 蕙草와 蘭草로 궁궐 지붕을 덮겠다고 했다. 이 작품은 南越을 격파하고 돌아온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배운 궁중연회에서, 樂人들에 의해 그들 병사들의 무공을 칭송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부른 개선가적 군악이 아닌가 한다. 처음과 끝에 나오

는 ‘擁離趾中’은 서로 호응관계를 이루어 重唱 되는 의미가 있다.

능에 오르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上陵何美美
아래 나루터는 바람 불고 춥도다.	下津風以寒
客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고 물으니,	問客從何來
물 중앙으로부터 왔다고 하더라.	言從水中央
계수나무가 그대의 배가 되고	桂樹爲君船
푸른 버드나무 가지는 당신의 밧줄이 되고	青絲爲君筩
목란이 그대의 노가 되며	木蘭爲君櫂
황금이 그 사이에 섞여 있구나.	黃金錯其間
창해의 참새 붉은데	滄海之雀赤
날개 펼친 큰 기러기와 흰 기러기 따르는구나.	翅鴻白雁隨
山林은 문득 열렸다 닫혔다 하니	山林乍開乍合
일찍이 해와 달이 밝은지도 모르겠네.	曾不知日月明
단 샘물의 물은	醴泉之水
광택이 얼마나 빛나는가.	光澤何蔚蔚
芝草로 수레 만들고 용으로 말을 삼으며	芝爲車龍爲馬
사해 바깥에서 오만하게 노니는구나.	覽傲遊四海外
甘露 초 2년에	甘露初二年
芝草가 銅池 속에서 생겨나고	芝生銅池中
仙人은 내려와 그 물마시니	仙人下來飲
延年하여 천년만년 누리소서.	延年千萬歲

<上陵>이라 불리는 이 작품에 대해 《古今樂錄》을 보면, “漢 章帝 元和 중에 宗廟食舉之樂이 6곡 있었는데, 여기에 <重來>와 <上陵>의 두 곡이 가하여져서 <上陵食舉>가 되었다.”⁹⁾고 하고 있다. 또한 《後漢書·禮儀志》에는 서한에 항상 食舉之樂이 있었고, 동한에서도 祭儀 시 太官이 신에게 음식을 바치면 太常이 食舉之樂을 연주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⁰⁾. 이런 기록들을 미루어 보아, <上陵>이란 이 작품은 교묘제의 시 신에게

9) “漢章帝元和, 有宗廟食舉之樂六曲, 加<重來> <上陵>二曲, 爲<上陵食舉>.”
 10) “西都舊有上陵. 東都之儀, 太官上食, 太常樂奏食舉.”

음식을 바칠 때(食學) 부른 노래인 듯하다. 위 작품의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食學과의 관계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제의 시 부른 노래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위 구절에 나오는 ‘客’이나 君’은 신령들을 뜻하는 듯한데, 교묘가사(祭儀歌)와도 비슷한 이 작품이 왜 고취요가(군악) 속에 들어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이를 군악이라는 면에 비추어보면, 개선하는 군인들에 의해 교묘제의에서 한 왕조가 신의 은덕을 입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정통성을 지닌 천자의 만수무강을 축수하기 위해 부른 노래가 아닌가 한다. 끝에 나오는 “甘露 초 2년에 芝草가 銅池 속에서 생겨나고, 仙人은 내려와 그 물마시니, 延年하여 천년만년 누리소서(甘露初二年, 芝生銅池中仙, 人下來飲, 延年千萬歲).” 하며 황제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것이 이를 나타내고 있다. 개선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교묘제의에서, 개선한 군인들에 의해 한 왕조를 축복하고 천자의 만수무강을 축수한 노래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개선가적 군악이 그 폭이 확대되고 또한 그 본질적인 의미가 희석되면, 이처럼 祭儀詩와 朝會詩 그리고 宴會詩와도 비슷해지게 된다. 개선가적 군악이란 개선하는 군인들의 무공을 신이나 천자에게 고하고(祭儀詩, 朝會詩), 또한 그들을 위해 베풀어지는 연회에 노래 부르기(宴會詩) 때문이다.

장차 술을 進獻하고 太白星을 타는구나.	將進酒, 乘太白
戰功을 밝혀 시로써 찾아내는구나.	辨加哉, 詩審搏
옛 곡조의 노래로 읊으니 마음에서 감흥이 일어난다.	放故歌, 心所作
太白星의 陰氣와 같이 하여 시로 모두를 찾아 읊었다.	同陰氣, 詩悉索
禹의 良工으로 연주케 하니	使禹良工,
보는 자 병사의 노고 생각하는구나.	觀者苦.

<將進酒>라 불리는 이 작품은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 교묘에 그 무공을 고할 때 읊은 작품인 듯하다. 宋 何承天의 <將進酒篇>에서는 朝會 시 술을 바치며 부른 노래라고 보고 있다¹¹⁾. 여기에서 말한 太白星은 《史記

· 天官書》에 의하면, 서방과 가을의 星神으로 ‘뿔을 주관하는 별이다. 교묘에서 戰功을 告神하기 위해 술을 진헌하며, 兵을 주관하는 太白星을 타고 올라갔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란 戰功을 告神할 때 읊은 내용을 뜻하는 듯하다. 이 戰功告神하는 행위에서 禹의 良工으로 하여금 연주케 하며 노래 부르게 하니, 그것을 옆에서 관전하는 자들이 모두 병사들의 노고를 생각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이 작품은 교묘에 戰功告神하고 병사의 수고를 위로하는 개선가적 군악이라 할 수 있다.

멀리 기약컨대, 더욱 壽를 더하시길	遠如期 益如壽
하늘 좌측에서 太樂이 울리니 만세토록 하늘처럼 끝이 없구나.	處天左側, 大樂, 萬歲與天無極
아악이 펼쳐지니 아름답고도 화려하도다.	雅樂陳 佳哉紛.
單于가 스스로 복속하니, (사람)마음을 움직여 놀라게 하는도다.	單于自歸 動如驚心.
그 마음 크게 아름다워 많은 오랑캐가 또한 복속하는 도다.	虞心大佳 萬人還來
알현하는 자 그 곳의 예물 가져와 전에 펼치니	謁者引鄉殿陳
(이는) 오랫동안 일찍이 듣지 못했던 바로다	累世未嘗聞之
만년동안 壽를 누리시길 역시 진실로 바라는 도다.	增壽萬年亦誠哉

위 작품은 <遠如期>란 작품인데, 宣帝 시에 흉노 呼韓邪單于가 來朝한 것을 축하하여 한의 정통성과 모든 異族들이 한에 감복하였다는 것을 읊은 작품이다. 《漢書·宣帝紀》의 기록에 의하면, 甘露 3년 정월에 흉노 呼韓邪單于가 漢에 복속하여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으며, 그 후 수많은 흉노족들이 漢文化에 감화되어 복속해 왔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 작품은 그 사실을 축하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지어 교묘에서나 朝會 혹은 연회 시 읊어, 한의 정통성과 모든 이족들이 한나라에 감복하였다는 것을 드러내었을 것이다. 이 작품이 군악인 고취요가 속에 포함되

11) “將進酒, 慶三朝. 備繁禮, 薦嘉肴.”

어저 있는 것은 漢의 武功을 칭송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크게 보아 한 제국의 ‘위엄을 세우고 덕을 드높이는(建威揚德)’ 개선가적 군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의 정통성과 제왕의 은덕을 칭송하는 성격의 ‘위엄을 세우고 덕을 드높이는(建威揚德)’ 개선가적 군악이 고취요가 18수 중에 가장 많다.

聖人이 나오니 음양이 조화롭고	聖人出, 陰陽和
美人이 나오니 모든 강이 (제대로) 흐르는구나.	美人出, 遊九河
佳人이 오시니 말이 힘차게 달려	佳人來, 駢離哉
여섯 마리 飛龍모니 四時가 조화롭구나.	駕六飛龍四時和
임금님의 신하가 명석하여 국가의 道를 잃지 않도록 지키시고	君之臣明護不道
美人이 있어 (후대) 천자를 마땅하게 하시는 도다.	美人哉, 宜天子
兎星의 별점을 치니 즐거운 덕 (여기에서) 시작되었도다.	免甘星筮樂甫始
美人의 아들이 四海를 품는구나.	美人子, 含四海

위 작품은 <聖人出>로, 윗 내용에서 말하는 聖人은 漢 高祖, 美人은 漢 武帝, 佳人은 漢 宣帝, 그리고 임금님의 신하(君之臣)는 무제 때 신하인 霍光을 지칭한다고 한다. 이는 한대 天子들의 업적과 덕을 칭송한 작품인데, 漢 郊祀歌(祭儀歌) 19장에 나오는 작품들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엄숙하고 경건하며 성스러운’ 내용으로 되어있다. 또한 한 왕조의 정통성과 천자들의 덕을 칭송한 <上陵>과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다. ‘위엄을 세우고 덕을 드높이는(建威揚德)’ 개선가적 군악이라고 할 수 있다.

(풀을) 베어 벌려놓는데, 어디에 펼쳐놓을까?	艾而張羅, 夷於何
그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몰아넣으니, 四時가 평화롭네.	行成之, 四時和
산에서 누런 참새 나와도 역시 (잡으려고) 펼쳐놓는 것 있어야지	山出黃雀 亦有羅
참새 높이 날아 도망가 버리면, 그 참새를 어찌할거나.	雀以高飛, 奈雀何

이를 위해 의지해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하니, 爲此倚欲,
 누군들 감히 돌화살에 맞으려하리. 誰肯蒙石

<艾如張>이란 이 작품은 수렵하는 사람들이 풀을 베어 펼쳐놓은 것을, 군대가 진을 펼쳐 적을 포위한 것에 비유하고 있다. 윗 작품에서 참새는 진을 펼쳐 잡아야 할 적을 비유하고 있다. 그 내용상 ‘적을 풍자하고 아군의 사기를 높이는(風敵勸士)’ 행진가적 군악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앞에서 고취요가 18수의 작품들을 군악의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역대 모든 전적에서 이 작품들이 전한 시대의 군악이라고 전해져 오니 이런 해석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라 여겨진다. 고취요가 18수에는 진혼가의 성격이 짙은 작품이 있고, 決戰歌의 성격이 강한 작품도 있다. 또한 ‘적을 풍자하고 아군의 사기를 높이는(風敵勸士)’ 행진가의 성격이 강한 작품도 있으며, ‘위엄을 세우고 덕을 드높이는(建威揚德)’ 개선가의 성격이 강한 작품도 있다. 이 중 建威揚德하는 개선가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 가장 많은데, 이 작품들 중에서는 교묘에서 戰功을 告神할 때 부른 작품도 있고, 또한 그들을 위해 배푼 연회에서 천자의 만수무강과 한의 업적 그리고 한의 정통성과 이족들의 한에 대한 감복한다는 것을 읊은 작품도 있다. 그러므로 이 개선가적 군악에는 祭儀詩, 朝會詩와 宴會詩(黃門鼓吹)의 성격이 어느 정도 들어 있다. 祭儀詩와 朝會詩에는 戰功을 告神 혹은 告天子 하고 신 혹은 천자의 축복을 칭송하며 한의 정통성과 한 천자의 업적을 읊은 작품들도 포함될 수 있으니, 戰功을 고하여 알리고 군인들을 위로하는 개선가적 군악과 그 성격이 비슷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연회시란 누군가를 위해 배푼 연회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읊은 작품이니, 무공을 세운 병사를 위해 배푼 연회에서 읊은 개선가적 군악 역시 그 연회시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즉 고취요가(군악)란 黃門鼓吹(연회시)의 일종인 것이다.

V. 결 언

군악은 크게 전쟁터에서 적을 제압하고 이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부르는 ‘적을 풍자하고 이군의 사기를 높이는(風敵勸士)’ 행진가적 군악과 무공을 세우고 돌아온 군인을 위로하고 칭송하기 위해 도로에서 혹은 연회나 교묘나 朝會에서 부른 ‘위엄을 세우고 덕을 드높이는(建威揚德)’ 개선가적 군악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 한대 군악은 고취요가 18수가 유일한데, 중국 학자들은 용감하고 씩씩한 내용만을 군악으로 인식하여 이 작품들을 군악으로서 올바르게 이해해오지 못했는 듯하다. 또한 전한대 지어졌다고 하는 이 작품들은 위진남북조 시대에 지어진 史書인 《宋書》에 처음 실려 있어, 그 시대적 차이로 말미암아 중간에 訛傳되어 해석이 잘 되지 않고 심지어 그 句讀조차 불가능한 작품도 있어 더욱 군악으로서의 해석을 어렵게 한 면도 있다.

위의 작품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決戰歌와 鎮魂歌의 성격의 작품도 있고, 또한 출정의식에서 불려진 행진가적 성격의 작품들도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위엄을 세우고 덕을 드높이는(建威揚德)’ 개선가적 군악의 성격의 작품인데, 그것도 연회에서 혹은 교묘제의에서 혹은 조회에서 불렸다. 그러므로 인해 이 개선가적 군악들은 일부는 연회시(黃門鼓吹)의 일종으로, 일부는 祭儀詩 일부는 朝會詩의 일종으로 보여 후대 학자들이 이를 군악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다. 개선가적 군악이란 무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군인을 위로하고 칭송하기 위하여 도로에서 혹은 그들을 위해 배푼 연회에서 혹은 천자를 배알(朝會)하는데서 혹은 그 무공을 교묘에 고할 때 부르는 것이다. 그 때 군인들의 무공을 칭송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그 무공을 세운 군인들에 의해 한의 정통성과 한 제왕의 은덕을 칭송하거나 혹은 이족들이 한에 감화되어 귀속되었다고 읊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그들에 의해 한나라의 번영과 제왕의 만수무강을 축원

하는 노래도 지어 바쳐졌다. 또한 무공을 세운 군인들을 위로하고 칭송하기 위해 그들에게 하사(給賜)한 노래 역시 개선가적 군악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므로 요가 18수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위엄을 세우고 덕을 드높이는(建威揚德)' 개선가적 군악은 범위도 굉장히 넓고 또한 그 내용도 다양하다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 《周禮》, 십삼경주소본, 대만 예문인서관 1981
《禮記》, 십삼경주소본, 대만 예문인서관 1981
《新譯禮記》, 權五惇譯, 서울 홍신문화사, 1982
《漢書藝文志講疏》 동남대학총서, 顧實, 대만 상무인서관, 1980
《中國文學發展史》, 劉大杰, 대만 화정서국, 1980
《中國文學史》, 金學主 丁範鎮, 서울 범학도서, 1979
《中國文學史》, 金學主, 서울 신아사, 1989
《中國文學序說》, 金學主, 서울 범학도서, 1976
《中國古代文學史》, 金學主, 서울 민음사, 1983
《中國詩史》, 陸侃如 馮元君, 대만 명운출판사, 1969
《漢代詩研究》, 金學主, 서울 광문출판사, 1974
《兩漢思想史》, 徐復觀, 홍콩 중문대학, 1975
《漢代學術史略》, 顧詒剛, 대만 천산출판사, 1985
《樂府詩集》 1 2권, 宋 郭茂倩篇, 대만 이인서국, 1984
《漢魏六朝樂府文學史》, 蕭滌非, 대만 장안출판사
《漢魏六朝樂府研究》, 陳義成, 대만 가신수니공사문화기금회, 1976
《兩漢樂府研究》, 元婷婷, 대만 학해출판사, 1980
《漢魏南北朝樂府》, 李純勝, 대만 상무인서관
《樂府古題要解》, 唐 吳兢撰, 대만 진체비서본

- 《樂府文學史》，羅根澤，대만 문사철출판사, 1981
《全漢三國晉南北朝詩》 상 하, 淸 丁福保篇, 대만 중문출판사, 1979
《漢詩研究》，方祖燊, 대만 정중서국,
〈漢晉之際士之新自覺與新思潮〉(중국지식계급사論 중 소재), 余英時, 대
만 연경출판공사,
〈漢代民歌의藝術分析〉, 廖蔚卿, 문학평론 제 6집 96쪽,
〈樂府 官署考〉, 줄고, 동의논집 제 18집, 1991

<中文提要>

軍樂構成到‘風敵勸士’的行進歌的軍樂和‘建威揚德’的凱旋歌的軍樂 ‘風敵勸士’的行進歌的軍樂在出征之前被歌頌, ‘建威揚德’的凱旋歌的軍樂爲功成的軍人在道路宴會宗廟或朝會上被歌頌

現在只有鼓吹饒歌18首以漢代軍樂的名義傳下來. 仔細地分析這些作品, 有決戰歌的作品, 有行進歌的作品, 有凱旋歌的作品. 此中‘建威揚德’的凱旋歌的軍樂最多. 在宮中宴會席上被歌頌的凱旋歌的軍樂很相似宴會詩(黃門鼓吹), 在宗廟或朝會上被歌頌的凱旋歌的軍樂很相似祭儀詩(郊廟歌辭).

주제어 : 祭儀詩, 朝會詩, 風敵勸士, 建威揚德, 鼓吹曲辭, 橫吹曲辭, 행진가적
군악, 개선가적 군악